

‘9평 공산당’ 책은 진실하고 심도있게 중공의 사악한 본질을 폭로했다. 2015년 1월 1일까지 1억 8,904만 명의 중국 민중이 해외 대가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중공의 당, 단, 대 조직 탈퇴를 성명했다.

필라델피아 자유의 종 앞에서 전해진 마음의 소리

[밍후이왕] 많은 해외 화인들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성탄절 휴가를 어떻게 즐겁게 보낼지 계획하고 있지만,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교외에 살고 있는 탄(談) 여사의 심정은 조금 특별하다.

대서양 연안에서도 떨치지 못하는 초조함

74세이지만 풍채가 늙름한 탄 여사는 자신의 초조한 심정을 토로했다. “나는 주말마다 파룬궁 수련생들과 함께 ‘자유의 종’이 있는 이곳에 와서 관광객들에게 파룬궁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곳은 자유의 땅입니다. 하지만 베이징에 있는 내 딸은 나처럼 사람들에게 파룬궁을 소개하다가 금년에 불법적인 체포를 당하고 형을 선고 받았습니.”

“당신들은 아주 평화롭습니다.”

자유의 종은 미국 자유정신의 상징이다. 매일 화인을 포함,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관광을 한다. 탄 여사가 최근 홍콩에서 온 리 선생을 만났는데, 그 선생은 “제가 홍콩에서 파룬궁 수련생들을 만나보았는데 아주 느낌이 좋았습니다. 당신들은 아주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은 무엇 때문에 당신들을 탄압합니까?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탄 여사는 그 남성의 의혹에 해답해 주었다. “사실 초기에는 대륙 관방의 매체도 모두 파룬궁을 지지했어요.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찌똥련(真善忍)은 사람 사이의 관계도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연공인 숫자가 급속히 늘어나니 당시 집권하고 있던 장쩌민이 엉뚱한 생각을 했죠. 당시 정치국 상무위원 7명 중에서 장쩌민만 탄압을 주장하면서 사활을 건 투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공의 역사를 보면 3반, 5반, 반우파 투쟁에다 문화



필라델피아 독립기념관 앞 광장에서 중국 대륙 관광객들이 앞다투어 파룬궁 소개 및 박해반대 전시판을 보면서 진상 자료를 요구하고 사진을 찍고 녹화하고 있다.

대혁명까지 중공은 줄곧 정치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탄 여사는 리 선생에게 ‘9평 공산당’을 보도록 권하면서 읽고 나면 곧바로 중공이 줄곧 폭력과 거짓말로 통치를 유지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이번 파룬궁 탄

압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들이 정치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1996년과 97년에 중공이 사람을 파견해 우리 수련생들을 뒷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파

룬궁이 연공하는 민간단체이고 정신과 신체건강의 향상을 추구할 뿐 조직의 형식이 없고, 정치의제도 없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원래 정탐하려고 잠입했던 많은 국가안전원과 공안인원들이 모두 진정한 파룬궁 수련생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파룬궁에 대해 모르고 있었는데, 중공이 분신 자살 등 거짓을 만들어 파룬궁을 미워하게 했습니다. 이러면 중국 사람들에게 아주 나쁜 후과를 가져다주게 됩니다. 중공이 온갖 나쁜 짓을 다해 역사의 쓰레기더미에 처박히게 될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문에 이곳에서 사람들에게 특히 중국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많은 사람이 점차 진상을 알게 되고, 많은 사람이 3퇴(중공의 당, 단, 대 조직에서 탈퇴)하여 평안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대학교수, ‘진선인’을 실천

[밍후이왕] 나는 대학교수다. 나는 학부모들이 나에게 자녀를 맡겼기에 당연히 그들을 잘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진심으로 학생을 대했다. 만약 강의 중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다음 수업시간에 꼭 학생들을 향해 오류를 시인하고 바로 잡았다. 만일 수업 중에 모르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모른다고 말하고 학생들과 함께 연구했다. 학생들은 어려움에 봉착했거나 문제가 있을 때면 모두 나와 함께 교류하려 했다.

20대 초반의 학생들은 흔히 성숙해 보이지 않고,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면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번은 두 학생이 무시협 추천제 연구생 정원을 두고 경쟁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한 학생이 성적을 우수하게 허위보고해 우위를

차지했다. 다른 학생은 나를 찾아와 그 학생이 성실하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나는 《전법륜(轉法輪)》에 나온 리홍쯔(李洪志) 사부님 말씀을 인용해 “당신의 것이라면 잃지 않을 것이고, 당신의 것이 아니라면 당신은 다뤄서도 얻지 못한다.”라고 하소연하는 학생을 깨우쳐 주었다. 다른 사람처럼 성적을 허위 보고하지 말고 진실해야하며, 타인이 선하지 않다고 같은 방식으로 대하지 말고 선해야하며,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사람이 성숙해지므로 참을 수 있어야 한다고 알려 주었다. 그리고 ‘찌똥련(真善忍)’ 이 세 글자를 지키는 사람은 하늘도 보살피 줄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후에 이 학생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다른 학교에 합격했다. 한 번은 한 학생이 이를 전 자신의

자전거를 훔친 학생을 붙잡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아주 화가 났지만 그 학생을 용서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처신이 옳은지 물었다. 나는 그에게 아주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남을 용서하는 것은 미덕이며, 참을 수 있고 타인을 선하게 대하면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고칠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흥분도 갈수록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동료와 친구들도 부부 사이에 모순이 있으면 나에게 하소연했다. 그러면 나는 대법에서 이야기한 좋은 여자는 부드럽고 남편을 존경해야 하며, 좋은 남자는 응당 책임을 감당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해야하는 바깥방이 서로 충성하고 충정해야 하는 도리를 알려주었다. 차츰 동료와 친구의 가정도 화목하게 되었다. 글/대륙대법제자



마지막으로 놓는 독주사



[밍후이왕] 산둥성 라이양시 환왕진 쉰칭촌 평범한 농가의 류즈메이(柳志梅)는 어려서부터 남달리 총명했고, 학업 성적도 아주 높았다.

1997년, 17세의 류즈메이는 한 차례 선발시험에서 '산둥성 제1위'의 성적을 얻었고, 칭화대학 화학공학과에 추천을 받아 공부하게 되었다. 그러나 류즈메이는 파룬궁 수련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3년 3월 학교에서 제명당했고, 뒤이어 베이징의 사악한 경찰에 납치되어 무고하게 12년형을 선고받아 산둥성 여자감옥에 감금되었다.

잔혹한 박해로 류즈메이는 정신이 이상해진 적이 있었고, 2008년에 부친이 감옥에서 그를 집으로 데려왔다. 류즈메이는 기차를 타고 오면서 아버지에게 출소하기 전 감옥에서 그의 치아에 구멍이 있어서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말했고, 구멍 하나에 주사 한 대를 맞아야 하는데 600위안씩 든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놓아 주었다고 말했다.

집에 돌아와서 3일 후부터 류즈메이는 갑자기 정신에 이상이 나타났고,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처음에는 헛소리를 하

다가 손과 발이 제멋대로 움직였고, 팔이 쉴새없이 앞뒤로 꿈틀거렸고, 밤이면 잠들지 못했다. 급기야 그는 급속히 기억력을 상실했고, 매일 예닐곱 병의 보온병 물을 마셨고, 오줌으로 젖은 침대에 누워서도 감각이 없었다. 류즈메이의 치아를 검사해 보니 구멍이 없었다. 친구들은 류즈메이가 출옥하기 전에 맞은 주사약 때문임을 알게 되었으며, 악인들이 치아에 구멍이 있다고 한 것은 주사를 놓기 위한 구실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전도가 유망하던 처녀가 중공에 의해 폐인이 되었다. 중공의 잔인함을 일반인은 상상하기도 어렵다. 류즈메이는 파룬궁을 수련했을 뿐인데 이렇게 그를 미치게 해야만 하는가? 폭로된 자료에 따르면 교도관들은 류즈메이가 출옥한 후 감옥에서 당한 잔인한 박해를 폭로할까 두려워 이런 악랄한 수단을 썼던 것이다.

장춘린(張春林)은 원래 지린성 쑹위안시 첸귀현 바이이라가향 홍광농장 1분장(一分場)의 농장장이었는데 파룬궁 수련을 견지했다는 이유로 불법적으로 노동교양을 당했다. 2008년 7월 1일, 장춘린은 홍



■ 중공은 파룬궁 수련생에게 100가지가 넘는 고문을 가한다.

광농장 1분장 서기 쟁쉬안촨의 밑고로 바이이라가향 파출소장 보위평에게 납치되어 첸귀현 구치소에 감금당했다. 8월 5일, 악인들이 장춘린을 주타이인마허 노동교양소로 납치해 가려 했으나 노동교양소는 장춘린의 혈압이 높다는 이유로 접수하지 않았다. 보위평 등 사악한 경찰은 장춘린을 다시 첸귀현 구치소에 감금했다. 장춘린이 출소하기 이틀 전인 2008년 9월 1일, 악인들은 장춘린에게 혈압이 높다는 이유로 이름 모를 정맥 점적주사를 강제로 놓았다.

내막을 아는 사람이 제보한데 따르면 장춘린에게 약물을 주사할 때 마음씨 착한 사람이 구치소 인원이 자리에 없는 틈을 타서 약병의 많은 약물을 쏟

아 버렸다고 한다. 9월 2일, 악인들은 또 전문 인원이 감시하면서 장춘린에게 점적주사를 놓았고, 주사바늘을 뽑지 못하게 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장춘린은 하루 종일 혼수상태였고 깨어난 후 정신이 이상했다. 말에 두서가 없었고, 기억력을 상실했으며, 대뇌와 신체반응이 느렸으며, 한 쪽 다리를 잘 쓰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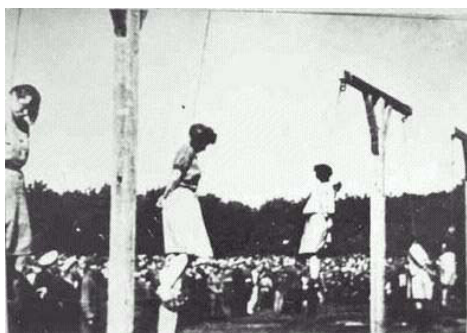
중공은 파룬궁 수련생들이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출옥할 때 그들에게 독극물을 주사해 그들의 기억력을 상실시키고 심지어 장애가 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그 음험함과 악랄함은 극도에 달한다. 글/창하이

역사 회고 : 뉘른베르크 법정심판의 한 토막

[밍후이왕] 1945년부터 1946년까지 뉘른베르크 재판과정에는 많은 충격적인 장면이 속출했다. 유대인을 깨끗이 없애는 것이 나치의 범죄정책이었지만, 나치의 고관들이 내막을 조금도 모른다고 변명하였기에 이들이 유대인을 박해하는 문건에 서명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아주 어려웠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부(副)검사 토마스·제이·다드(Thomas J. Dodd)가 뜻밖에도 교수형을 당해 죽은 폴란드인의 두개골을 제시했다. 그 두개골은 나치수용소 지휘관 칼 코치(卡爾·科赫)의 책상 위에서 발견된 것인데 코치가 서진으로 사용하던 것이었다.

다드가 이 놀라운 증거를 제시하자 범정은 충격에 빠졌다. 판사와 기자는 물론 나치의 전범들마저 수용소의 변태스러움에 혐오감을 느꼈다. 만약 이것마저 '잔인하다'고



1946년, 뉘른베르크 법정심판에서 범죄 행위가 증명된 나치 수용소 '죽음의 간호사 그룹' 의사와 간호사들이 교수형에 처해졌다.

말하지 않는다면 인류의 도덕과 양심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잔인한 실물 앞에서 모든 변명은 무색하고 무력해졌다. 아무리 교활하고 언변이 좋은 나치 교관도 나치당의 이 비인도적이고

반인성적인 죄악을 변명할 수 없었다.

양심에 위배되고 도덕의 최저선을 넘어서는 잔인한 악행은 모두 인정하고 허용할 수 없다. 이것은 사람이 악마와 구별되는 최저 표준이다. 1946년 9월 30일, 뉘른베르크의 판사는 그 잔인한 박해자들에게 유죄를 판결한 250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읽었다. 인류 공동의 인식에 따라 잔인한 나치당 수용소의 만행에 전 세계가 증오를 보냈다.

지금 중공의 감옥, 구치소, 세뇌반에서는 쩌촨린(真善忍)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착한 사람들에게 나치수용소보다 더 참혹한 박해를 가하고 있다. 중공은 심지어 살아 있는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를 적출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지구상에서 있어 본 적이 없는 이 사악한 생명들은 기필코 법률의 징벌과 하늘의 청산에 직면할 것이다. 글/밍스